

#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조사; 마산과 창원 지역 저소득층과 중류층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hildren's After-School Life and the Mothers' needs on the After-School Care Program; The Comparison of Low-Income Families with Middle-Income in Masan/Changwon Area\*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권민균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Myn-gyun Kw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types and the activities of after-school child care for children from low-income(106) and middle-income(99) families and (2) to examine the needs and expectations for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 of low-income(107) and middle-income(100) mo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ercentage of self-care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re higher than the children from middle-income families. The after-school activities mainly consist of arts, music, physical and computer lessons. (2) The needs on the after-school care program with non-profit basis which is managed by public welfare systems are higher among the low-income mothers than the middle-income mothers. Many mothers want professional, non-profit, systematic and formal after-school care programs.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after-school care program which can meet needs of the children and the mothers from diverse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s.

**주제어(Key Words):** 방과후 아동지도(after-school childcare), 저소득층(low-income class), 중산층(middle-income class), 아동의 방과후 생활(children's after-school life)

\* 본 논문은 2000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부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구조가 되었고, 편부모가족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1994년 보육사업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하여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보육시설은 목표대비 118% 실적을 기록하고 1999년 현재 전국 1만 8천여 개 시설에서 61만 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다(한국보육시설연합회, 1999). 이와 같은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은 보육사업의 양적인 측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육관련제도의 정비,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다양한 연령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적으로 증가된 보육서비스는 0~5세의 영유아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령기는 인격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에 의한 세심한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6~12세) 가운데 70~80만 명의 어머니가 취업 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또한 이 아동들은 방과후 3~7시간 가량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재인, 1995). 학령기 아동이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또한 자녀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취업모의 자기갈등과 생활상의 불만족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계순, 1991).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과후 보육사업의 중요

성을 인지하여 영유아보육법(제16조) 시행규칙을 개정(1996. 1)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 대책'(1996. 6)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으로 1998년까지 공공시설 600개소, 민간시설 1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99년 9월말 현재 전국 방과후 보육시설 수는 149개의 방과후 보육 전담 시설과 488개의 혼합 시설이 있을 뿐이며 12,723 명의 아동이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제외한 숫자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계획에 상당수 못 미쳐서 학령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보육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방과후 아동의 안전과 교육은 아동의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향란, 1996). 이러한 방과후 보육의 구성과 제공은 특정 지역사회 아동의 생활조건과 욕구파악에 근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산과 창원지역의 저소득층 및 중류층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와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기대를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공급은 숫자적 계산에 의한 수요 및 공급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단위 지역의 특수성과 요구를 나타내는 기대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는(김중해, 1999)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경상남도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계획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 1)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 2) 중류층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 3)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무엇인가?
- 4) 중류층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 1. 방과후 생활경험과 아동의 발달

6~12세의 학령기는 발달적 변화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학령전 유아 혹은 청소년기에 비하여 교육학자 혹은 발달심리학자의 관심을 덜 받아온 시기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가 발달상의 변화와 과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Erikson에 의하면 이 시기는 소속된 사회로의 적응 및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지적 학습을 위한 기초적 기술의 습득과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및 태도가 형성되는 때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탐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이 소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 및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Collins, 1984, 재인용).

학령기 아동성장의 중요한 변화는 아동의 삶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 확장된 삶의 영역은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아동의 초기적응 정도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의 성공도와 관계가 있다. 아동의 확장된 삶의 환경의 두 번째는 또래집단이다. 또래집단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은 가족 관계와는 다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욕구를 조정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래는 아동에게 여러 방면에서 지지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의 삶의 반경을 확장시키는 영역은 학교 밖에서의 여러 활동이다. 여러 종류의 교외 과외활동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며, 성장기의 욕구에 활력을 주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소속감 및 안정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마친 후 어떠한 경험을 어디에서 주로 하며 일상을

보내는 가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lpern, 1992).

방과후 아동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과후의 안전한 환경, 사회적 지지와 풍부한 학습경험은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의 높은 취업률 및 편부모 가정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의 안전한 활동장소의 필요를 증대시킨다. 셋째, 교육관계자 및 부모들은 방과후의 시간을 아동들의 학습 향상을 위한 지지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각종 청소년 범죄, 성범죄 및 기타의 비행 등은 방과후 활동경험의 종류에 따라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 2000).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어머니가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방과후에 주로 가정에서 어머니 및 형제와 함께 긴밀한 접촉 속에서 생활하였던 전통적인 아동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취업모는 부모 이외의 타인에 의한 보육 혹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보호 등의 다양한 보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자기보호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은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놀이터에서 지내는 것, 혼자 혹은 동생과 잠자거나 집안 일을 하는 것, 숙제와 TV 시청, 과외학습 등으로 나타났다(이옥, 1993).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2000)에 따르면 방과후에 어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들은 학교 결석율이 높고, 학교성적이 낮으며, 위험부담이 높은 행동을 빈번히 하며 약물중독의 가능성이 높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증폭한다. 청소년 범죄는 방과후의 오후 3시~6시 사이에 3배로 증가한다. 또한 아동이 강력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오후 2시~6시 사이에 가장 높다. 반면, 좋은 질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하여 또래관계가 좋아지며, 정서적 적응력이 높고, 갈등조정 기술이 향

상되고, 학교성적이 상승하며 학교에서의 품행이 좋다. 좋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아동들은 지적 및 정서적으로 풍부한 자극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TV를 보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 (Posner & Vandell, 1994). 방과후에 운동활동에 참가하는 여자아동은 자존감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신감이 생기는 반면에 우울증, 십대임신 혹은 흡연 등의 행동이 감소한다.

## 2. 빈곤한 아동의 생활조건 및 방과후 활동

방과후 시설보육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경험 중 특정 유형이 직접적으로 아동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방과후 생활경험의 효과는 그 아동의 가정환경, 부모의 자녀 양육관, 수입정도 및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teinberg, 1986; Vandell & Ramanan, 1991). 예를 들어 시설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아동의 수 및 교사 교육정도 등의 프로그램 질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역동적 특징이 있다(Rosenthal & Vandell, 1996).

방과후 활동유형 중 자기보호의 경우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믿음이나 (Long & Long, 1983), 실증적 자료가 이 믿음을 항상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기보호 아동일지라도 부모의 가치관, 수입의 정도,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의 특징 및 아동 자신의 성격적 특징과 관련되어 어머니에 의하여 보호되는 아동들과 차이 없이 지적,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반면, 지역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아동들의 행동문제가 자기보호 아동보다 더 컸다고 보고한 예도 있다(Vandell & Corasaniti, 1988; Vandell & Ramanan, 1991).

방과후 자기보호를 선택하는 가정은 빈곤층에서 더욱 빈번할 것이라는 상식적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중류층 자녀들이 자기보호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된 경우도 있다(Cain & Hofferth, 1989). 그러나 자기보호 상황에 있는 아동일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소재 혹은 활동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적응행동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Steinberg(1986)는 '자기보호'의 생활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부정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기보호 아동 중에서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 친구집에서 보내는 경우 혹은 친구들과 집밖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 등으로 자기보호를 세분하여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자기보호와 아동발달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지역 빈곤층 자녀의 자기보호 경험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경제적 조건은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주거조건이 열악하며, 그것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역시 밀집지역으로서 유해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 혹은 편부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며, 자녀의 삶에 대한 관심과 통제의 정도가 약할 수 있다.

빈곤은 일차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어 납중독, 청각 및 시각장애, 빈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관계된 질병인 천식, 두통, 복통 및 불면에 시달리게 한다. 빈곤한 아동의 주거환경은 비위생적이며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수의 사람으로 붐빈다. 맞벌이를 하는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적절한 자녀보호를 하지 못하여 아동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빈곤한 아동들은 문화적 소외, 행동문제, 심리적 불안정 및 학습장애 가능성이 높다. 빈곤한 부모는 무기력감 및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자녀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기보다는 강압적인 처벌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

생활 및 학습을 보살펴 주지 못한다. 자녀 또한 또래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갖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쉽다(Papalia & Olds, 1998).

이와 같이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맞벌이 혹은 편부모 가족일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증대된다. 또한 빈곤이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 가난에 비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장기화시킨다(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도시지역의 빈곤층 자기보호 아동은 공포심, 사회적 고립감, 학업능력의 저하, 무단결석, 약물남용 및 스트레스가 빈번하다고 보고되었다(Galambos & Garbarino, 1985; Miller, O'Connor & Sirignano, 1995). 따라서 빈곤한 환경의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지도는 중류층 아동들의 생활지도보다 더 긴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방과후 생활실태 및 교육과 보호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서울, 부산 및 광주지역의 방과후 생활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취업모의 학령기 자녀는 자기보호 비율이 높고,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 저소득층 취업모는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환경과 교육적 경험의 제공을 원하였다(정현희·최경순, 1996). 광주시 저소득층 취업모는 종일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자녀를 위한 일상생활 훈련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오선영·이숙, 1993). 고졸 이하 학력의 부모는 방과후 아동지도가 필요한 이유로서 교육적 도움을 들었는데 이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는 부모가 또래관계를 원하는 것과 대조된다(이진영·박인전, 1996).

현재까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빈곤한 환경에 있는 아동은 방과후에 성인의 지도와 보호 없이 혼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되나, 이것이 지역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보호'의 부정적 효과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방과후 생

활지도는 시급한 문제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과 어머니의 자녀 방과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두 개이다.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지는 보건복지부(1998)의 초등학교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실태 조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방과후 아동의 생활상태에 관한 질문 6문항, 교내 및 교외 방과후 특별활동 참여유무 및 종류에 대한 질문 5문항, 방과후 활동에 대한 아동의 기대에 관한 질문 2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조사는 선행연구(이옥, 1993)에서 사용된 것을 기초로 하였고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필요한 문항을 첨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묻는 문항에 조사 대상자의 취업유무, 학력수준, 직업종류 등의 사회경제적 계층 파악을 위한 문항이 첨가된 것으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조사대상

사회계층은 수입, 직업, 교육, 권력 및 생활양식에 의하여 구분된다(김선호·김정환, 1993).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은 '저소득층은 영세민층, 빈곤층으로 불리우며,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이 낮고 수입수준도 낮은 계층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보건복지부(1998)에서는 저소득층이란 5인 이상 가족기준 시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115만원까지인 가족(4인 기준은 105만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저소득층 가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월 소득이 115만원 미만의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중류층은 가구당 월소득이 200~350만원인 가족으로 규

정하였다. 이는 통계청(1999)의 도시가계조사통계에 따라서 도시근로자소득을 10분위 하였을 때 극빈층을 10%, 저소득층을 30%, 중류층을 50%, 상류층을 10%로 나눈 것에 근거한다. 이러한 범주에 따르면 극빈층의 월평균소득은 641,791원, 저소득층은 1,079,600~1,593,829원, 중류층은 1,837,967~3,460,490원, 상류층은 6,109,273원이므로 중류층 조사대상은 월소득 200~350만원 범위에 있는 가정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0년 4~5월에 마산·창원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질문지 배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행해졌다.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마산과 창원의 5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과 급식지원 대상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가정조사 결과, 월소득이 불안정적이거나 안정적이더라도 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었고 편부모 가정 혹은 조부·조모 가정도 많았다. 또한 주거환경도 13평 미만의 임대 아파트이거나 아동의 공부방이 따로 없이 한 개의 방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 134명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어머니 130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중 유효한 응답자료인 아동 106명과 어머니

107명이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중류층은 마산과 창원지역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아동 120명, 어머니 130명을 조사하여 가계소득이 200~350만원 가정에서 유효한 응답자료인 아동 99명, 어머니 10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석된 자료의 총 수는 아동 205명과 어머니 207명이다. 수집된 자료의 항목별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계층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9.0 Program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계층과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저학년과 고학년 빈도 분포 및 저소득층과 중류층간의 빈도차이는 크지 않다. 어머니의 취업유무, 학력과 직종분포의 일반적 사항이 계층별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998년

<표 1>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명(%))

학년 \ 계층	저소득층	중류층	계
저 학년	33 ( 31.1)	49 ( 49.5)	82 (100.0)
고 학년	73 ( 68.9)	50 ( 50.5)	123 (100.0)
계	106 (100.0)	99 (100.0)	205 (100.0)

<표 2> 조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사항(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계
모 취업 유무	유	76 ( 71.0)	40 ( 40.0)	116 ( 56.0)
	무	31 ( 29.0)	60 ( 60.0)	91 ( 44.0)
	계	107	100 (100.0)	207 (100.0)
모 학력	고졸이하	41 ( 38.3)	45 ( 45.0)	86 ( 41.5)
	전문대졸이상	7 ( 6.5)	40 ( 40.0)	47 ( 22.7)
	무응답	59 ( 55.1)	15 ( 15.0)	74 ( 35.7)
	계	107 (100.0)	100 (100.0)	207 (100.0)
모 직업 종류	단순근로직	53 ( 49.5)	7 ( 7.0)	60 ( 30.0)
	기술직	4 ( 4.7)	9 ( 9.0)	13 ( 6.3)
	판매·서비스직	15 ( 14.0)	11 ( 11.0)	26 ( 12.6)
	자영업	3 ( 2.8)	6 ( 6.0)	9 ( 4.3)
	사무직	.	7 ( 7.0)	7 ( 3.4)
	종교인	1 ( 0.9)	.	1 ( 0.5)
	무직	31 ( 29.0)	60 ( 60.0)	91 ( 44.0)
	계	107 (100.0)	100 (100.0)	207 (100.0)

도 전국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47.3%임을 고려할 때 (통계청, 1999), 마산·창원의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율(71.0%)은 전국수준에 비하여 높으나, 중류층 취업율(40.0%)은 낮다. 모의 학력수준을 보면 저소득층은 응답자 대부분이 고졸 이하이고 중류층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저소득층 어머니의 무응답이 과반수였는데 이는 학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저소득층 어머니 사이에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모의 직업종류는 저소득층의 경우 단순근로직(49.5%), 판매·서비스직(14.0%)의 순서로 분포되었으나 중류층의 경우 판매·서비스직(11.0%), 기술직(9.0%)으로 분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저소득층과 중류층은 월소득뿐만 아니라 취업율, 교육수준과 직종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방과후 생활과 보호실태

'어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린 곳'(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계층 모두 '곧장 집으로 갔다'는 응답이 저소득층 50.0%, 중류층 67.7%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은 문방구에 들린 경우가 31.1%이고, 중류층은 학원으로 간 경우가 20.2%라는 것이 대조적이다.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가 아동들의 소비욕구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인데 이를 저소득층 아동

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같다. 반면 중류층 아동은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활동이 빈번함을 나타낸다.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정도는 계층간 차이를 보이는데( $\chi^2=29.65, p<.001$ ),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집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중류층은 '대개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가 57.6%로 저소득층의 24.5%에 비하여 높다. '내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와 '형이나 동생이 집에 있다'가 저소득층이 60.4%로 중류층의 40.5%보다 높아서 저소득층 아동은 방과후에 혼자 집에 있거나 형제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저소득: 60.4%, 중류층: 40.5%)은, 저학년 아동의 자기보호 비율이 24~33%라고 한 이옥(1993), 한경희(1991), 한국어린이보호회(1992)의 보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취업모 가정의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방과후 아동생활을 돌볼 성인이 부재하는 가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정현희·최경순, 1996).

'여러분은 학교 숙제를 보통 언제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11.26, p<.01$ ). 저소득층 아동은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하는 경우(26.4%)가 많았고 중류층 아동은 잠자기 전에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75.8%). 중류층 아동은 방과후에 각종의 과외활동을 하므로 학교숙제를 할 여가가 잠자기 전에 나는 것 같다. 중류층 아동(1.0%)에 비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 혹은 학교에 가서'(12.3%)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문항인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의 응답과 관련성이 있다. 즉, 저소득층은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28.3%)의 비율이 높는데 이로 인해 숙제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학교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33.08, p<.001$ ). 중류층 아동은 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78.8%), 저소득층은 조부·조모·형제의 도움(29.2%)을 받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28.3%)가 중류층에 비하여 많았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저소득층 아동은 숙제지도 등의 학습도움을

<표 3> 방과후 아동들이 커가 길에 들린 곳(빈도(%))

커가 길에 들린 곳	계 층	저소득층	중류층
곧장 집으로		53(50.0)	67(67.7)
학 원		12(11.3)	20(20.2)
문방구		33(31.1)	15(15.2)
슈퍼, 가게		14(13.2)	11(11.1)
분식집		2( 1.8)	0( 0)
놀이터(학교운동장)		9( 8.4)	1( 1.0)
전자오락실		9( 8.4)	1( 1.0)
그외 다른 곳(서점, 친구집)		13(12.3)	3( 3.0)

〈표 4〉 방과후 성인의 보호 상태, 숙제를 하는 시간 및 도와주는 사람(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방과후 성인의 보호상태	대개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	26( 24.5)	57( 57.6)	83( 40.5)	29.65***
	내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49( 46.2)	35( 35.4)	84( 41.0)	
	형이나 동생이 집에 있다.	15( 14.2)	5( 5.1)	20( 9.8)	
	어머니는 아니지만 다른 집안 어른이 계신다.	15( 14.2)	2( 2.0)	17( 8.3)	
	가족은 아니지만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집에 계신다.	1( .9)	0( .0)	1( .5)	
	계	106(100.0)	99(100.0)	205(100.0)	
숙제를 하는 시간	집에 돌아오자마자 숙제를 한다.	28( 26.4)	23( 23.2)	51( 24.9)	11.26**
	잠자기 전에 숙제를 한다.	65( 61.3)	75( 75.8)	140( 68.3)	
	아침에 학교 가기 전 혹은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한다.	13( 12.3)	1( 1.0)	14( 6.8)	
	계	106(100.0)	99(100.0)	205(100.0)	
숙제를 도와주는 사람	부모님	45( 42.5)	78( 78.8)	123( 60.0)	33.08***
	조부·조모·형제	31( 29.2)	4( 4.0)	35( 17.1)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0( 28.3)	17( 17.2)	47( 22.9)	
	계	106(100.0)	99(100.0)	205(100.0)	

\*\*p&lt;.01, \*\*\*p&lt;.001

부모이외의 가족에게서 얻거나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에 대한 부모지원의 취약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Papalia & Olds, 1998).

## 2.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의 참여유무 및 활동종류에

대한 계층별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도에는 계층간 차이가 없었다( $\chi^2=4.70$ ). 즉 저소득층 아동의 41.5%, 중류층 아동의 56.6%가 참여하므로 대략 2명중 1명이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은 아동의 소질, 적성개발 및 취미, 특기 신장교육 기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경상남도교육청, 2000),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조사대상 아

〈표 5〉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 참여유무 및 종류(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교내 방과후 활동	유	44( 41.5)	56( 56.6)	100( 48.8)	4.70
	무	62( 58.5)	43( 43.4)	105( 41.2)	
	계	106(100.0)	99(100.0)	205(100.0)	
특별활동 종류*	음악활동	3( 2.8)	8( 8.0)	11( 5.4)	
	미술활동	11( 10.4)	7( 7.1)	18( 8.8)	
	체육활동	5( 4.7)	18( 18.2)	25( 12.2)	
	컴퓨터	18( 17.0)	25( 25.3)	43( 21.0)	
	바둑	1( .9)	5( 5.1)	6( 3.0)	
	영어활동	5( 4.7)	3( 3.0)	8( 4.0)	
	보충학습	3( 2.8)	1( 1.0)	4( 2.0)	
	글짓기	0( .0)	6( 6.1)	6( 3.0)	

\*복수응답이므로  $\chi^2$  검증 실시하지 않음.



〈표 6〉 방과후 교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소요시간 및 지도교사(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주당 특별활동의 수*	1주에 1~2번	10( 9.4)	13( 13.2)	23( 11.2)	·
	1주에 3~4번	30( 28.3)	39( 39.4)	69( 33.7)	
	1주에 5번 이상 하지 않는다.	4( 3.8)	4( 4.0)	8( 3.9)	
	계	62( 58.5)	43( 43.4)	105( 51.2)	
특별활동에 걸리는 시간*	1시간 미만	14( 13.2)	19( 19.2)	33( 16.1)	·
	1~2시간	25( 23.6)	37( 37.4)	62( 30.2)	
	2~3시간	5( 4.7)	0( .0)	5( 2.4)	
	계	62( 58.5)	43( 43.4)	105( 51.2)	
특별활동 지도교사	학교 선생님	8( 18.2)	14( 25.0)	22( 22.0)	.67
	외부강사	36( 81.8)	42( 75.0)	78( 78.0)	
	계	44(100.0)	56(100.0)	100(100.0)	

\*빈도가 5미만인 cell이 20.0%이상이어서 2점중 실시하지 않음.

동들은 교내에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활동 참여도(21.0%)가 높는데 이는 초등학교 PC보급율이 양호한 현실도 반영한다. 그러나 사진, 연극, 방송 및 향토답사와 같은 동아리 중심의 아동문화창달에 기여할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표 5〉참고).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주당횟수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들 모두 일주일에 3~4회 활동이 가장 많았다.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할 때 걸리는 시간은 저소득층과 중류층 모두 1~2시간 소요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교내 방과후 활동 지도교사는 계층간 차이가 없이( $\chi^2=.67$ ) 주로 외부강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2000)은 교육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교내 전임 교사에 의한 지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실재는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다. 이는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비 상승의 간접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저소득층 아동의 참여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 3.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의 참여유무 및 활동종류에

대한 계층별 분포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교외 과외활동 참여도는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52.17$ ,  $p<.001$ ). 중류층 아동의 86.7%가 교외 과외활동에 참여하는데 비하여 저소득층은 37.7%가 참여하였다. 〈표 7〉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응답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이상의 교외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은 7명으로 6.6%인 반면 중류층은 53명인 53.5%이다. 중류층 아동은 두 명중 한 명은 두 가지 이상의 교외 과외활동을 하는 셈이다. 방과후 교내 특별활동 참여도와 비교할 때 중류층은 교외 과외활동이 더 빈번하며, 저소득층은 그 반대이다. 이는 과외활동 비용이 교외보다 교내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교외 과외활동 종류는 다양한데 중류층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 아동의 두 명중 한 명은 피아노 등의 음악(48.5%)을 배우고 있으며 이외에도 미술(26.3%), 영어(21.2%)와 체육활동(20.2%)이 많다. 저소득층 아동은 전반적으로 교외 과외활동의 참여가 미미하나, 다른 활동에 비하여 속셈(13.2%), 음악(9.4%) 및 영어활동(7.5%)의 참여가 많았다. 저소득층 아동의 교외 과외활동 참여율이 37.7%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아동 세 명중 한 명은 속셈을 하는 것

〈표 7〉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 참여유무 및 종류: 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교외 방과후 활동	유	40( 37.7)	86( 86.7)	126( 61.5)	52.17***
	무	66( 62.3)	13( 13.3)	79( 38.5)	
	계	106(100.0)	99(100.0)	205(100.0)	
교외 과외 활동 종류 <sup>1</sup>	음악활동	10( 9.4)	48( 48.5)	58( 28.3)	
	미술활동	2( 1.9)	26( 26.3)	28( 13.7)	
	체육활동	7( 6.7)	20( 20.2)	27( 13.2)	
	컴퓨터	5( 4.7)	5( 5.1)	10( 4.9)	
	바둑	0( .0)	1( 1.0)	1( .5)	
	영어활동	8( 7.5)	21( 21.2)	29( 14.1)	
	속셈(과외)	14( 13.2)	17( 17.2)	31( 15.1)	
글짓기	1( .9)	2( 2.0)	3( 1.5)		

<sup>1</sup> 복수응답이므로  $\chi^2$ 검증 실시하지 않음.

\*\*\*p<.001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현희와 최경순(1996)의 연구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저소득층은 학교공부에 도움을 주는 방과후 과외활동에 치중하는 반면, 중류층은 재능개발 혹은 정서발달에 치중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신분상승은 제도교육 안에서의 성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지적 학습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활동을 저소

득층 가정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과 교외 활동간의 특징적 차이는 교내는 저소득층의 17.0%와 중류층의 25.3%가 컴퓨터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교외는 각각 4.7%와 5.1%의 참여에 머물렀다. 이는 교외 컴퓨터 교육비가 교내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의 주당횟수는 〈표 8〉에 제

〈표 8〉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의 주당 참여 횟수, 시간 및 장소(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주당 과외활동의 수	1주에 1~2번	12(11.3)	16(16.2)	28( 13.6)	2.49
	1주에 3~4번	5(4.7)	17(17.2)	22( 10.7)	
	1주에 5번 이상	23(21.7)	53(53.5)	76( 37.1)	
	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66(62.3)	13(13.1)	79( 38.5)	
	계	106(100.0)	99(106.0)	205(100.0)	
과외활동에 걸리는 시간	2시간 미만	35(33.1)	69(69.7)	104( 50.7)	.78
	2~4시간 미만	5(4.7)	16(16.2)	21( 10.2)	
	5~6시간	0(0)	1(1.0)	1( .5)	
	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66(62.3)	13(13.1)	79( 38.5)	
	계	106(100.0)	99(100.0)	205(100.0)	
방과후 과외활동 장소*	학 원	26(24.5)	71(71.7)	97( 47.3)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	5(4.7)	3(3.0)	8( 3.9)	
	우리집이나 친구집	9(8.5)	12(12.1)	21( 10.2)	
	방과후 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66(62.3)	13(13.1)	79( 38.5)	
	계	106(100.0)	99(100.0)	205(100.0)	

\*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의 20.0% 이상이므로  $\chi^2$ 검증 실시하지 않음.

시되어 있는데 계층간 차이는 없었다( $\chi^2=2.49$ ).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 모두 주당 5회의 과외활동이 가장 많았다. 이는 사설학원의 운영이 주당 5회 교육임을 감안할 때 교외 과외활동은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계층 아동 모두 과외활동에 걸리는 시간은 교내 방과후 활동과 같이 1회당 2시간 이하의 활동이 가장 많았다. 방과후 교외 과외활동 장소는 학원이 저소득층 24.5%, 중류층이 71.1%이었다. 중류층 아동이 두 번째로 자주 이용하는 과외활동 장소는 '우리집이나 친구집' (12.1%)인데 이는 소그룹 활동 혹은 방문교사 과외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양계층 모두 '사회복지관 혹은 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활동은 미비했다. 이는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부족한 때문인지 혹은 아동들의 이용도가 단순히 낮은 때문인지 차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아동들의 방과후 과외활동은 사교육비로 충당되며 사교육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들이 평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계층간 차이

가 있었다( $\chi^2=9.55$ ,  $p<.01$ ). 저소득층 아동은 매일 4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을 갖는 경우(56.6%)가 많으나, 이에 비하여 중류층은 2~4시간 미만(43.4%)과 2시간 미만(21.2%)이 더 많았다. 이는 중류층 아동이 방과후 여러 활동으로 바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일 자유로운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복수응답 중 빈번한 활동을 순서대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TV시청(37.7%), 놀기(34.0%), 컴퓨터게임·PC방·전자오락(24.5%)이었고, 중류층 아동은 놀기(37.4%), 컴퓨터게임·PC방·전자오락(26.3%), 운동(18.2%)이었다. 중류층 아동의 TV시청율(16.2%)에 비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37.7%)이 두 배로 높았다. 이는 중류층 아동에 비하여 자원 및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PC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활동은 양계층 아동에게 빈번한 여가활동이었다.

4. 방과후에 하고 싶은 활동 및 배우고 싶은 활동

'방과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표 9>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일 자유시간 및 여가활동의 종류(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자유시간	2시간 미만	13(12.3)	21(21.2)	34(16.6)	9.55**
	2-4시간 미만	33(31.1)	43(43.4)	76(37.1)	
	4시간 이상	60(56.6)	35(35.4)	95(46.3)	
	계	106(100.0)	99(100.0)	205(100.0)	
여가활동 <sup>1</sup>	놀 기	36(34.0)	37(37.4)	73(35.6)	
	TV시청	40(37.7)	16(16.2)	56(27.3)	
	컴퓨터(PC방, 전자오락)	26(24.5)	26(26.3)	52(25.4)	
	가사일 돕기(동생돌보기)	5(4.7)	4(4.0)	9(4.4)	
	공부, 독서, 숙제	21(19.8)	14(14.1)	35(17.1)	
	운 동	17(16.0)	18(18.2)	35(17.1)	
	미술(그림, 만들기, 서예)	2(1.9)	1(1.0)	3(1.5)	
	간식 먹기	0(0.0)	2(2.0)	2(1.0)	
	놀 시간이 없다	0(0.0)	2(2.0)	2(1.0)	
	음악(음악감상, 피아노)	0(0.0)	3(3.0)	3(1.5)	
	낮 잠	1(0.9)	5(5.1)	6(3.0)	

\*\*p<.01

<sup>1</sup> 복수응답이므로  $\chi^2$ 검증 실시하지 않음.

요?’ 라는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복수응답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방과후 활동은 다양하였으나 그 중 저소득층 아동은 컴퓨터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42.5%), 그 다음이 운동(17.9%)이었다. 반면 중류층 아동은 운동(37.4%)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쉬고싶다·없다·자고싶다’(19.2%)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컴퓨터 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는 전반적 컴퓨터 보급율에 비하여 컴퓨터활동 접근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용이하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류층 아동 모두 운동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은 성장기의 아동으로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중류층 아동의 경우 ‘쉬고싶다’의 반응은 방과후에 각종 학습과 특기활동 등으로 지친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다.

방과후에 배우고 싶은 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복

수응답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비율(42.5%)이 가장 높았다. 서울 난곡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엄마,아빠에 대한 난곡 어린이들의 소망’ 2위가 ‘컴퓨터 등을 사줬으면’인 것과 일치한다(중앙일보, 2001. 4. 8). 중류층 아동은 운동을 배우고 싶은 비율(39.4%)이 가장 높았다. 이는 양계층 아동 모두 방과후에 하고 싶은 활동과 배우고 싶은 활동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부모들이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내·외 방과후 활동은 학습, 특기·예능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아동들의 자발적 의지와 욕구에 의한 방과후 활동은 컴퓨터게임, 운동 등의 놀이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의 응답은 계층별 삶의 조건과 욕구를 반영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즉, 현재의 정보·지식사회의 물결속에서 저소득층 아동은 컴퓨터 등의 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이는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 불평등을

<표 10> 방과후에 하고 싶은 활동 및 배우고 싶은 활동(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방과후에 하고 싶은 활동	음 악	7(6.6)	4(4.0)	11(5.4)
	미술(만화그리기, 서예)	10(9.4)	10(10.1)	20(9.8)
	운 동	19(17.9)	37(37.4)	56(27.3)
	컴퓨터(게임, 오락실)	45(42.5)	14(14.1)	59(28.8)
	학습(수학, 영어, 과학, 관찰, 한자, 학습지)	15(14.2)	3(3.0)	18(8.8)
	바 둑	2(1.9)	1(1.0)	3(1.5)
	글짓기, 독서	1(9)	4(4.0)	5(2.4)
	부모님과 함께 있기	2(1.9)	2(2.0)	4(2.0)
	자유롭게 놀기	2(1.9)	7(7.1)	9(4.4)
	쉬고싶다(없다, 자고싶다)	9(8.5)	19(19.2)	28(13.7)
	TV시청(비디오 보기)	1(9)	0(0)	1(5)
	쇼핑, 백화점	1(9)	1(1.0)	2(1.0)
	취미활동(수예, 미니카 경주)	2(1.9)	1(1.0)	3(1.5)
방과후에 배우고 싶은 활동	음 악	11(10.4)	12(12.1)	23(11.2)
	미술(만화)	24(22.6)	9(9.1)	33(16.1)
	운 동	20(18.9)	39(39.4)	59(28.8)
	컴퓨터	45(42.5)	29(29.3)	74(36.1)
	학습(영어, 수학, 과학, 관찰, 학습지, 한문)	16(15.1)	7(7.1)	23(11.2)
	바 둑	0(0)	2(2.0)	2(9)
	글짓기, 독서	0(0)	2(2.0)	2(9)
	취미활동(동물기르기, 미니자동차경주, 요리)	1(9)	2(2.0)	3(1.5)
없다	2(1.9)	3(3.0)	5(2.4)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교교육 혹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컴퓨터 학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 5.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기대실태

현재의 방과후 자녀보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계층간 차이 없이( $\chi^2=3.26$ )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전체: 43.0%)와 '더 좋은 방법을 탐색'(전체: 32.9%)하는 것이 높았으나 '그대로 유지'는 24.2%에 불과하였다. 두계층 모두가 현재의 방과후 자녀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과반수가 방과후 자녀를 맡아 보살펴 주는 비영리 기관을 필요로 하였다(67.3%). 이는 취업모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방과후 아동지도 필요도가 높으며 또한 저렴한

사교육비 지출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반면 중류층 어머니들은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에 65.0%가 해당되었다. 이는 서울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가 30.3%임을 고려하면(이육, 1993),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증가된 사회인식을 반영한다.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우리나라 형편상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의 의견이 4.0% 미만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양 계층 어머니의 높은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념이 아동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보호·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문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어머니들의 이러한 응답은 현재 학원수강 위주의 방과후 활동에 불만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계층간 차이가 없었다(<표 11> 참조). 계층에 상관없이 '숙제지도 등 교육적 도움이 필요해서'(48.8%)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39.1%)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

<표 11> 현재의 방과후 자녀보호 방법의 유지 여부, 필요성, 이유(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현재의 방과후 지도방법의 유지여부	그대로 유지	21(19.6)	29(29.0)	50(24.2)	3.26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 까지 유지	46(43.0)	43(43.0)	89(43.0)	
	더 좋은 방법을 탐색	40(37.4)	28(28.0)	68(32.9)	
	계	107(100.0)	100(100.0)	207(100.0)	
비영리 방과후 아동지도 필요성*	방과후 아동을 맡아 보살펴 주는 시설이 우리아이를 위하여 필요하다.	72(67.3)	31(31.0)	103(49.8)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1(29.0)	65(65.0)	96(46.4)	
	방과후 아동지도는 우리나라 형편상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4(3.7)	4(4.0)	8(3.9)	
	계	107(100.0)	100(100.0)	207(100.0)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기 위해서	39(36.4)	42(42.0)	81(39.1)	3.77
	숙제지도 등 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58(54.2)	43(43.0)	101(48.8)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5(4.7)	10(10.0)	15(7.2)	
	나는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5(4.7)	5(5.0)	10(4.8)	
계	107(100.0)	100(100.0)	207(100.0)		

\*빈도가 5미만인 셀이 20.0%이상이므로  $\chi^2$ 검증 실시하지 않음.

기 때문에' (7.2%)는 비율이 낮았다. 어린 자녀를 위한 부모의 공통된 관심은 학습 등의 교육적 지원과 안전·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일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계층간 차이가 없이 주 3·4회의 방과후 아동지도를 가장 선호하였고(저소득층: 42.1%, 중류층: 48.0%) 휴일을 제외한 매일을 원하는 비율도 높았다(저소득층: 33.6%, 중류층: 30.0%). 이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와는 관계없이 대다수의 어머니가 주 1·2회 지도보다는 주 3·4회 이상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규 학교교육이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활동은 체계적이고 연계적 활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인식과 기대를 나타낸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와 만나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37.15, p<.001$ ). 중류층 어머니의 자녀는 3시간 미만의 비율이 82.0%로 저소득층의 41.1%보다 높다. 저소득층 아동은 6시간 이상(31.8%)과 3~6시간(27.1%)의 비율이 중류층 아동(각각 7.0%, 11.0%)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앞의 <표 4>에서 제시되었듯이 '자기보호' 아동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현재 자녀의 방과후 지도비용을 조사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124.62, p<.001$ ). 저소득층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68.2%)가 중류층(1%)에 비하여 높았고, 중류층은 '10~20만원미만' (41.0%), '20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 (32.0%)의 비율이 저소득층(각각 4.7%, 1.9%)에 비하여 높았다.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계조사 결과 2000년 사교육비 지출은 상위 10%가 37만5천원이고 하위 10%가 5만9천원 이었다. 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하위 10%의 6.4배에 이르는데 이는 1995년도의 4.0배의 차이와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중앙일보, 2001. 4. 9). 이러한 현실이 본 조사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자녀를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에 보낼 경우, 적절한 비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도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8.55, p<.05$ ). 저소득층 어머니는 월 1~4만원(76.6%)의 비율이 중류층(58.0%)에 비하여 높았고 중류층 어머니는 월 5~9만원(33.0%), 월 10만원 이상(9.0%)이 저소득층의 각각 16.8%, 6.5%에 비하여 높았다. 양계층 모두 월 1~4만원의 지출기대가 반수가 넘는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지출되는 방과후 아동지도 비용과 대조가 된다.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비용에 대한 저소득층 응답 중 68.2%가 '전혀 들지 않는다' 인데 비하여 적절한 방과후 아동지도 비용으로 월 1~4만원 응답이 76.6%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기대, 필요 및 현재 지도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학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활동은

<표 12> 방과후 아동지도의 일수 및 방과후 시간(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방과후 아동지도 일수에 대한 요구	휴일 제외 매일(주5일 이상)	36(33.6)	30(30.0)	66(31.9)	3.58
	주 3일 또는 4일 정도	45(42.1)	48(48.0)	93(44.9)	
	주 1일 또는 2일 정도	14(13.1)	17(17.0)	31(15.0)	
	필요 없다	12(11.2)	5(5.0)	17(8.2)	
	계	107(100.0)	100(100.0)	207(100.0)	
자녀의 방과후 시간의 길이	3시간 미만	44(41.1)	82(82.0)	126(60.9)	37.15***
	3~6시간 미만	29(27.1)	11(11.0)	40(19.3)	
	6시간 이상	34(31.8)	7(7.0)	41(19.8)	
	계	107(100.0)	100(100.0)	207(100.0)	

\*\*\*p<.001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지도 혹은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1~2시간 동안 제공되는 예·체능중심의 재능교육은 저소득층 자녀의 안전한 보호,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자녀의 귀가 후 부모가 일터에서 귀가할 때까지 최소한 3시간 이상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며, 학습지도, 생활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1~4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중류층의 경우도 현재 방과후 자녀지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은 양을 원한다.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및 기관에는 계층간 차이가 없었다(표 14). 양계층 어머니의 다수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아동지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 51.4%, 중류층: 48.0%). 이는 학교교육과 연계된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또한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저소득층: 24.3%, 중류층: 27.0%).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기대는, 방과후 아동지도를 공공복지차원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영유아탁아기관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지도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은 취학전 아동과 취학아동의 발달단계상의 특성과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대상 연령이 12세로 되어 있으므로 6세 이후의 아동보육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이고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의 면적비용, 교사비용 및 교사자격 등을 영유아용과 구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녀의 방과후 지도를 담당할 교사의 자격에 대한 기대는 계층간 차이가 없었다( $\chi^2=7.65$ ). '초등학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37.7%)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2.9%)이었다. 이러한 방과후활동지도교사 자격에 대한 기대는 정규교육 못지 않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선호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chi^2=15.08$ ,  $p<.01$ ). 저소득층 어머니는 '숙제지도와 학교학습의 보충'(38.3%) 비율이 중류층의 19.0%보다 높았다. 또한 '예절 등의 생활교육'에 대한 기대가 14.0%로 중류층의 7%보다 높았다. 반면 중류층은 '예체능 교육을 통한 재능, 특기교육'(40.0%), '놀이 및 레크레이션 등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34.0%)의 비율이 저소득층 각각의 비율 27.1%, 20.6%보다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의 숙제 및 학습지도 여유가 없는 실

〈표 13〉 현재 자녀의 방과후 지도비용 및 바람직한 비용기대(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현재 자녀의 방과후 지도비용	20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	2(1.9)	32(32.0)	34(16.4)	124.62***
	10~20만원 미만	5(4.7)	41(41.0)	46(22.2)	
	10만원 미만	27(25.2)	26(26.0)	53(25.6)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73(68.2)	1(1.0)	74(35.7)	
	계	107(100.0)	100(100.0)	207(100.0)	
적절한 방과후 아동지도 비용	월 1~4만원	82(76.6)	58(58.0)	140(67.6)	8.55*
	월 5~9만원	18(16.8)	33(33.0)	51(24.6)	
	월 10만원 이상	7(6.5)	9(9.0)	16(7.7)	
	계	107(100.0)	100(100.0)	207(100.0)	

\* $p<.05$ , \*\*\* $p<.001$

〈표 14〉 적절한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 교사 및 선호프로그램(빈도(%))

항 목	구 분	저소득층	중류층	전 체	$\chi^2$
적절한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	초등학교	55(51.4)	48(48.0)	103(49.8)	4.74
	종교기관(교회, 성당 등)	13(12.1)	8(8.0)	21(10.1)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관	26(24.3)	27(27.0)	53(25.6)	
	대학부설의 방과후 아동 지도 교실	11(10.3)	17(17.0)	28(13.5)	
	영유아 탁아기관	2(1.9)	0(0)	2(1.0)	
	계	107(100.0)	100(100.0)	207(100.0)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자격에 대한 의견	대학생 혹은 가정주부 등의 자원봉사자	34(31.8)	16(16.0)	50(24.2)	7.65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1(29.0)	37(37.0)	68(32.9)	
	초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8(35.5)	40(40.0)	78(37.7)	
	사회복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3.7)	7(7.0)	11(5.3)	
	계	107(100.0)	100(100.0)	207(100.0)	
선호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숙제지도와 학교학습의 보충	41(38.3)	19(19.0)	60(29.0)	15.08**
	놀이 및 레크레이션 등의 사회성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22(20.6)	34(34.0)	56(27.1)	
	예체능 교육을 통한 재능, 특기교육	29(27.1)	40(40.0)	69(33.3)	
	생활교육 (예절 등)	15(14.0)	7(7.0)	22(10.6)	
	계	107(100.0)	100(100.0)	207(100.0)	

\*\*p&lt;.01

태를 반영함과 동시에 방과후 아동지도 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력을 보충하려는 기대를 표현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은 현실 속에서 예절 등의 생활 및 가치관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은 방과후 아동지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표 11〉참고) 및 선호하는 프로그램 모두에서 숙제지도 및 학교학습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류층은 방과후 아동지도는 자녀의 학습지도와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만(〈표 11〉참고), 부가적으로 재능, 특기교육과 사회성·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산·창원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실태와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를 조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및 중류층 아동의 방과후 성인의

보호상태 및 학업에 대한 지원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아동' 및 형제에 의한 보호가 저소득층 아동이 중류층 아동에 비하여 많았다. 방과후 숙제지도 등의 학습지도는 중류층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에 비하여 부모 도움율이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이외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숙제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 혹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더욱 빈번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 및 서비스는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생활지도는 시급한 문제이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방과후 가정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과 생활지도를 담당할 공부방 등의 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용가능한 영유아보육시설이 적은 경향이 있는데, 저



소득층 거주지역에 공립 방과후 보육시설이 안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내 방과후 특별활동 참여 및 종류에는 계층간 차이가 없는데 아동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예체능 및 컴퓨터 활동이 주를 이루는 특기적성교육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현재 특기적성교육 위주의 교내 방과후 활동은 바람직한 가치관, 문화, 규범 등을 전달해 주는 교육 및 또래관계 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전액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내 방과후 활동의 참여도가 중류층에 비하여 낮은 것은 교내활동 운영의 개선을 요구한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의 요구는 자녀의 안전보호, 학교학습의 보충, 생활교육 등에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혹은 강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이후 평가 등의 feedback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내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취지인 아동문화 창달 및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외 방과후 과외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종류 및 지출비용의 계층간 차이는 우리 나라 사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비하여 중류층 아동들의 과외활동 참여가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였다. 중류층의 과반수가 과외비용으로 1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저소득층의 과반수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성격의 속셈활동이 많았다. 양 계층 아동의 이용장소는 사설학원이 주를 이루어서 공공시설 이용도는 낮았다. 방과후 아동지도가 사교육비에 의해 부담되어 영리적 사립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저소득층과 중류층 모두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계층간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기회를 양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과후 지도는 아동의 교육권 및 복지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서 정책

적, 행정적 차원에서 관심과 투자를 요구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문화경험, 놀이활동, 또래관계 혹은 예절지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적 차원에서 방과후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 아동과 중류층 아동이 방과후 자유시간을 보내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중류층 아동은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아동들은 평일 4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이 여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저소득층 아동이 T.V.를 보며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T.V. 시청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인지하여 교육적, 보호적 차원의 방과후 아동지도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귀가 후 어머니와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층간 차이가 있었다. 중류층 아동에 비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부모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직종이 단순기술직, 음식·숙박업 혹은 기타 서비스인데 이들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장시간 방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류미희, 1993). 서울 난곡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보고에 의하면 방과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들은 친구들과 동네 이곳저곳을 쏘다니거나, 빈집에 들어가서 흡연, 음주, 본드흡입 등의 비행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엄마, 아빠에 대한 소망 1위는 '일찍 귀가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이었다(중앙일보, 2001. 4. 9). 방치된 아동들의 심리적 고통과 욕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는 야간보육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에 아동이 배우고 싶은 활동은 어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부모에 의해 지원되는 방과후 과외활동은 저소득층 아동은 속셈이며 중류층 아동은 음악, 영어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방과후에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은 활동은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컴퓨터 게임, 운동 등의 놀이활동에 치중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교육이 약화

되고 있는 현실과 인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식할 때 방과후 아동지도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여야(이향란, 1996) 하며 성장기 아동들의 욕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양계층 모두 방과후 아동지도 기관으로 적절한 곳으로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사회복지관이었다. 지도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및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선호하였다. 이는 방과후 아동지도는 공공시설에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정규교육 못지 않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보인다. 교육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에서 제시되었듯이 지역별, 거주지별, 계층별로 아동의 처지와 요구는 다르다. 저소득층은 맞벌이 부모가 많으나 아동지도 비용부담으로 자녀들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놀이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방과후 지도가 제공되어서 취약한 삶의 조건 속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갖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류층의 경우, 방과후 과외활동 참여는 높으나 지식 혹은 기술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 아동들의 사회성 및 신체활동,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이외에 농어촌 및 공단 지역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특수한 문제를 갖는 아동, 즉 정신장애, 학습장애, 신체장애 및 정서장애 등의 특수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초등학교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방학중 아동지도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초등학교생들의 방

과후 활동경험이 그들의 성격, 사회성, 지적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선호, 김정환(1993). 사회계층과 교육. 서울: 배영사.
- 김재인(1996).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 정무장관실 주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공청회 자료집, 1-60, 한국여성개발원.
- 김중해(1999). 도시지역 보육사업의 실태와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33.
- 경상남도교육청(2000). 특기·적성 교육활동 길잡이 (장학자료). 경상남도.
- 류미희(1993). 한국 빈민, 공단지역의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1998). 방과후 아동 보육프로그램 I. 서울: 인쇄공업협동조합.
- 오선영, 이숙(1993).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에 관한 요구 조사. 대안가정학회지, 31(2), 141-157.
- 이 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옥승(편), 탁아연구 II, 7-32. 서울: 양서원.
- \_\_\_\_\_(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아동학회지, 16(1), 3-20.
- \_\_\_\_\_(1997). 방과후 아동지도의 이론적 기초. 한국 아동학회(편), 1997년 한국아동학회 방과후 아동지도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인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정적 증상과 생활만족. 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이진영, 박인전(1996).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도. 한국가족복지학, 3(1), 23-42.
- 이향란(1996).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구: 공부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2000). [ '난곡' 현장 리포트 ] 2. 열악한 교

- 육환경. 중앙일보, 2000, 4, 9.
- 정현희,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한국보육시설연합회(1999). 보육정보. 11월.
-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 서울시 저소득층의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한국어린이보호회(1992). 국민학교 어린이의 방과후 실태조사. *샘물*, 29, 6-7.
- 한국여성개발원(1997).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실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1999). 도시가계조사.
- Bolger, K.E, Patterson., C.J, Thompson., W.W., & Kupersmidt, J.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Cain, V.S. & Hofferth, S.L. (1989). Parental choice of self-care for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5-77.
- Collins, A. (1984). The status of basic research on middle childhood. In W.A. Collins (ed.) *Development During Middle Childhood: The Years From 6 to 12*.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Halpern, R. (1992). The role of after-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city children: a study of the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1), 215-230.
- Galambos, N. & Garbarino, J. (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Long, T.J. & Long, L. (1983). *The handbook of latchkey children and their parents*. New York: Arbor House.
- Miller, B.M., O'Connor, S., & Sirignano, S.W. (1995). Out-of-school time: A study of children in three low-income neighborhoods. *Child Welfare*, 74(6), 1249-1280.
-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 (2000).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out-of-school time. Online report on [www.wellesley.edu](http://www.wellesley.edu).
-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 (2000). Fact sheet on school-age children's out-of-school time. Online report on [www.wellesley.edu](http://www.wellesley.edu).
- Papalia, D. & Olds, S. (1998). *Human Development* (7th ed.). U.S.A.: McGraw Hill.
- Posner, J.K. & Vandell, D.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osenthal, R. & Vandell, D.L. (1996). Quality of care at school-aged child-care programs: Regulatable features, observed experiences, child perspectives, and parent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67, 2434-2445.
- Steinberg, L. (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 Vandell, D.L. & Corasaniti, M.A. (1988). The relations between third graders' after 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868-875.
- Vandell, D.L. & Ramanan, J.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